

“광주교육청 청사 이전 최적지 ‘신창동 부지’ 타당”

타당성조사 용역 주민설명회

현 청사 리모델링·신축 어려워 진흥원 등 4개동 철거 후 지어 1535억원 투입...2028년 완공

광주시교육청이 청사 이전 부지를 검토한 결과 광주 광산구 신창동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마친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이전 계획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광주 서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청

사 전환배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됐다. 건축당시에 비해 현재 조직규모 2배, 직원 수가 3배 이상 증가해 추가적으로 업무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 청사 리모델링 △현 청사 철거 후 신축 △산하기관 부지(광산구 신창동)에 철거 후 신축 △폐교부지에 신축 등 총 4개 방안이 검토됐다.

이중 폐교부지를 활용한 청사 이전은 폐교 5개소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청사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더라도 준공까지 심의와 논의가 예상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배제됐다.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안은 수직 증축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보강량이 과다 발생하고 수평 증축은 주차공간 확보, 향후 증가할 행정수요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부적합 결론이 도출됐다.

평가 결과 학교시설지원단 등이 위치한 신창동 부지에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지어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제외하고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등 4개동을 철거, 3만4117㎡규모 부지에 △신청사 △카페, 은행 등 주민친화형 공간 △강당 등 특수목적실 △지하주차장(347대) △기타 시설이 들어선다.

청사 건물은 현재 주차장이 들어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다. 사업비는 153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전환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주시교육청은 향후 타당성 조사, 지방·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7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청사가 있는 화정동 부지는 통합늘

봄센터, 교사지원센터, 시민협치진흥원 등 광주교육을 통합지원하는 기관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민의 이해를 얻고 사업동력을 확보해 투자심사 등 향후 사업 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청사 전환배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명회는 19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광주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18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의 1층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와 카페 종업원·손님 등 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 대인동 카페에 승용차 돌진... 8명 병원 후송

경찰, 급발진 가능성 등 조사

“광하는 소리에 놀라 쳐다보니 차 한 대가 카페 창문을 뚫고 돌진하고 있었어요.”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진한 차량으로 아비규환을 이뤘다.

사고 현장은 유리 파편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널부러져 있고 카페로 돌진한 차량 밑에는 사람들이 깔려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광주 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2시14분께 발생했다. 대인동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카페안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고, 운전자 A씨와 카페 종업원·손님 등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롯데백화점 주차요원 정주원(32)씨는 “운전자를 직접 차량에서 빼냈다. 차 밑에 6명이 깔려 있었다”며 “종업원을 포함한 3명은 매대에 누워 있었고 직접 목격한 부상자는 9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차 교차로에서 커브를 돌아야 하는데 그대로 직진해서 카페로 돌진했다”며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엔진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피해 현장 바로 옆 카페 종업원인 이모(44)씨는 “폭발음과 같은 큰 소리가 들렸다. 건물이 무너진 줄 알았다”며 “소리를 듣고 밖에 나오니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119를 불러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가 난 카페는 평소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였다. 점심 후 커피를 마시려는 직장인들이 붐빌 때였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 권모(25)씨는 “승용차 속도를 보니 멈출 것 같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많이 다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에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급발진 가능성과 차체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글·사진=박찬 수습기자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정선 시교육감과 정진욱·조인철·전진숙 국회의원 당선자, 진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과 장애인들이 18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평등으로 향하는 길’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광주시가 후원하고 광주시장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18일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주제로 하는 기념식에 고광완 행정부시장·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장애인 및 가족 60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 문턱을 낮추는데 헌신한 유공자 25명에 광주시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장애학생 15명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애인복지 위해 노력한 이들에 공로패·감사패 수여, 지역 기관 및 기업의 후원금 전

달식도 이어졌다.

장학금을 수상한 남부대 초등특수교육과 이지원씨는 “장학금을 받게 돼 기쁘다. 이 기회를 통해 열심히 공부해 장애아동 교육 모범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부 기념행사에서도 초청 가수 노래에 이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이어졌다.

진건 광주시장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축사에서 “장애 학생들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선예학교를 개교했다. 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센터와 협업 중”이라며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 평등하게 끼와 적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됐다.

나다운·윤준명 수습기자

술취해 거리서 바지 내린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됐다.

18일 광주 서부소방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 119안전센터 소속 A(33)소방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소방관은 지난달 1일 오후 11시1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바지를 벗고 여성 보행자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다.

당시 A소방관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소방관은 “소변이 마려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방관은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서는 A소방관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조민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강주비 기자

광주교사노조 “사립학교 특수교육 부실... 개선하라”

특수학급 사립중·고 9곳만 설치 전일제 특수교육실무사는 전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 교사단체가 특수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 지역 사립학교 특수학급 및 실무사 배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156개교 중 138개교(88.46%), 중학교는 92개교 중 59개교(64.13%), 고등학교는 68개교 중 23개교(33.82%)에 특수학급이 설치·운

영 중이다. 이중 공립중 66개교 중 54개교인 약 82%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반면, 사립중 25개교 중 단 4개교인 약 16%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됐다. 공립고 24개교 중 17개교인 약 71%가, 사립고 43개교 중 5개교인 약 12%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사노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갈수록 특수학급을 설치 비율이 줄고 있다”며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집안 학교를 두고 멀리 통학을 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조한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에 대해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상황은 심각하다”며 “공립 중·고등학교 103학급에 38명의 특수교육 실무사가 배치된 반면, 사립 중·고등학교 12학급에는 전일제 특수교육실무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광주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은 현재와 같이 시간제 특수교육 실무사를 채용해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현장의 요구에 따라 실무사를 채용하고 배치해 질 높은 특수교육을 통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혜인 기자